

게리 예이츠 박사, 12권, 13회, 이스라엘의 영적 불신앙, 1부, 호세아 4-14장, 1부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12장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13강, 이스라엘의 영적 불신앙, 호세아 4-14장, 1부입니다.

지금까지 호세아서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첫 번째 부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책의 세 장에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대표한다는 강력한 은유와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신실치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여자를 사랑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방식으로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그들은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해 왔습니다. 이 비유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실제로 책의 나머지 부분인 4장부터 14장까지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세아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과 그들이 어떻게 불신앙을 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을 연구하면서 그 세부 사항과 세부 사항, 그리고 호세아의 설교와 메시지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책에 담긴 메시지와 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역사적 배경과 역사적 세부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다루고 싶습니다. 아모스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는 아시리아의 위기와 BC 745년 신아시리아 제국의 부상, 티글랏 빌레셀, 그리고 궁극적으로 BC 722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내부 역사에 관해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서두에 있는 머리글이나 표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왕의 시대에 베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니라." 호세아가 북쪽에서 사역을 수행한 것을 알 때, 그 언급이 주로 남쪽의 유다 왕들에 관한 것이라는 표제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또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사실은 호세아의 사역이 722년과 721년에 북쪽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반영합니다. 그는 남쪽으로 이주할 예정이며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표제에는 북쪽 왕국에 관해 언급할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만 언급됩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일련의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우리는 여로보암과 유다 왕들 모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40년 넘게 통치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경계와 경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는 큰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왕들은 모두 약하고 무능력한 통치자들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겪게 되는 상황은 심지어 군주제 자체도 일종의 혼란과 폭력에 삼켜졌다는 것입니다. 한 약한 왕이 다른 왕으로 교체되는 쿠데타가 많이 있습니다.

752년 이스라엘 왕 므나헴 때부터 이 모든 왕들은 궁극적으로 앗수르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왕들은 종종 앗수르에 대항하여 반역을 시도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러한 계획, 음모, 동맹 중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후에는 스가랴의 통치가 있게 됩니다. 스가랴는 6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샬렘이 이끄는 쿠데타로 살해당했습니다. 샬렘은 한 달 동안 통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752년에 스가랴가 죽으면서 예후 가문과 여로보암 2세 왕조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샬렘은 한 달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살해되고 10년 동안 왕좌를 차지했지만 아시리아의 봉신이 된 므나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브가히야는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폐가가 이끄는 쿠데타로 인해 살해됩니다. 베가가 왕위에 오르고 아시리아 군대와 제국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아시리아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체되었습니다. 호세아는 1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8세기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군주제 자체는 지금까지 맡았던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8세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보다는 니트로글리세린 트럭을 운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러한 혼돈과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 자신들을 인도할 군사적 자원이나 천재성을 갖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통치자와 새로운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경우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호세아가 이러한 문화와 맥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4-14장의 설교에는 호세아가 여러 왕조와 일어난 쿠데타에 연루된 폭력과 혼란을 다루는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장 4-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빵 굽는 사람이 반죽을 반죽하여 발효될 때까지 불을 휘젓는 것을 멈추는 가열된 오븐과 같습니다.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포도주의 열기로 병들었느니라. 그분께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시니 이는 그들이 화덕 같은 마음으로 음모에 접근하여 밤새도록 분노가 타올랐음이다.

아침에는 타오르는 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들 모두는 화덕처럼 뜨거워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의 왕은 모두 쓰러졌고, 그들 중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살인과 음모와 음모가 있는 이유, 스가라의 죽음, 샬롬의 죽음, 브가히야의 죽음, 베가의 죽음, 이런 끊임없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이유는 백성들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효과가 없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호세아는 권력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는 문화를 제시합니다. 한 왕자가 술에 취해 살인하고 암살하고 음모에 연루되고 우리가 돌아서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호세아는 이것이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배도와 간음의 징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지도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력에 대한 이러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의 일부입니다. 8장에서도 같은 문제를 다룰 것이다.

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왕자들을 세웠으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자신들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음모, 이러한 끊임없는 쿠데타와 음모가 있습니다. 정치적 음모는 그들의 우상 숭배만큼이나 야훼로부터의 배신의 징후입니다. 왕들을 선택하고 선택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승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승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왕조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음모와 음모로 사람들 자신과 그들의 배교, 우상 숭배에까지 반영됩니다. 그것은 호세아서의 배경의 일부이며 이 모든 일에서 일어나는 일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4장부터 14장으로 가면서 이 책과 관련해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다시 예언서와 예언서의 배열 방식으로 돌아가서 그 배열과 예언서를 결정하기가 종종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구조.

4장부터 14장까지 읽으면서, 선지자가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논쟁이 때때로 일종의 원형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요 주제 중 일부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책들은 우리가 평소에 읽는 책들처럼 다시 읽히지는 않습니다. 좋은 목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Kindle에서 책을 읽는 것처럼 섹션별로 정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연대기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선지자의 메시지의 첫날과 첫 해부터 그의 마지막 말과 마지막 메시지까지 우리를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역 중 여러 시기의 메시지가 함께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의 설교집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호세아는 이 한 책의 이 장들에서 찾을 수 있는 말씀을 훨씬 넘어서는 오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려는 구조는 Dr. Bob Chisholm이 소선지서 주석에서 제기한 구조입니다. 그는 4장부터 14장까지를 우리가 언약 소송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사건으로 봅니다. 언약 소송은 예언서에서 두드러진 장르이다.

미가서 6장을 보면 그 중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소송에서 일어나는 일은 선지자가 법정 소송의 배경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검찰관이다. 판사와 검사가 함께 일할 때마다 피고인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정 소송에서 선지자는 사람들을 법정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 주실 것이지만 또한 그들을 불성실하다고 비난하실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히브리어 갈비뼈인데, 이는 소송, 다툼, 분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공식적인 법적 방식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나는 이 장르의 목적이 다시 은유로서 사람들에게 법정에서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며 언약 불신앙으로 법적 기소를 당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은 불성실한 배우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간음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4장부터 14장까지 상상할 수 있는 방식은 여기에 그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과 불신앙의 혐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호세아야, 우리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길갈, 벳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불충실하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교도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주변의 이방인들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형식적으로 호세아 선지자의 전체 메시지와 사역을 형식적인 법적 책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 소송에서는 증인이 법정에서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부르신다. 그들은 모세 시대에 언약이 성립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제 그들은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5~600~7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봅시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언약을 지켜 살아왔습니까? 선지자는 그들의 불충실함을 공식적으로 기소할 것이다.

호세아서에는 실제로 세 가지 서로 다른 언약 소송이 나옵니다. 이러한 각 소송의 구조는 기소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언적 심판 연설에는 비난과 발표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판결이 발표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실 구체적인 일들입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소송에는 항상 기소가 있고, 항상 고발이 있으며, 항상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중 일부에서 선지자는 앞뒤로 이동할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불충실했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그 결과로 일어날 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 소송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호세아의 구조를 볼 때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 소송 모두, 각각이 희망과 회복의 말로 결론을 맺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선지자의 이중 역할 구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중적 역할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기소하는 것뿐 아니라 심판이 끝나면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1-3장에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심판과 회복의 순서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심판의 씨를 뿌리실 것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에 씨를 뿌리실 것이다. 불쌍하지 않은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백성을 보내시되 결국에는 긍휼을 베푸시리라. 언약이 파기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로암미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언약 소송에는 호세아 4-14장에 세 주기로 배열되어 있듯이 기소, 고발,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는 희망의 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 소송은 호세아 4장부터 호세아 6장 3절까지 이어집니다. 4장 1절, 6장 3절. 이것이 첫 번째 주기, 첫 번째 언약 소송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 부분에 기소가 있습니다.

1-3절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느니라 이것이 ESV에서 번역된 방식입니다.

히브리어로 갈비뼈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빗대를 가지고 계시니 곧 이 땅 주민과 다투시느니라. 이 땅에는 신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욕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유혈사태가 뒤따릅니다. 모세오경 토라의 핵심인 십계명 중 다섯 가지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공식적인 기소입니다.

법정에 끌려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교통 위반으로 법정에 섰는데 정말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판사 앞에 서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 심판자가 하나님 자신일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혐의로 기소되고 있으며,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비난은 4장에서 5장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기서 특별히 기소될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제사장들의 책임이 크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성약의 의무를 가르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들이 심판의 원인이 되었는데, 특히 이 첫 번째 부분에서 그들이 표적이 됩니다. 그것은 4장을 거쳐 5장까지 이어지며, 이 기소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5장 15절에서 그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며 환난 중에 있을 때까지 내가 내 곳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으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법정으로 데려가시는 것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법정 절차에서, 저는 이것이 성약 소송의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그들을 기소하고 형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당신을 법정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혐의가 있습니다. 통과하지 못하고 바로 감옥에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여전히 피고인으로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나는 결백 해. 내 사건에 대해 항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5장 4절에서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 이는 음행의 영이 그들 속에 있음이라.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긴 기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지도자들을 기소하고, 국민 자신을 기소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 이런 범죄로 우리를 기소하는 겁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다시 부르십니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이 있고, 그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고치셨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묶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셋째 날에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분 앞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틀이 지나서 엄한 심판이 되려니와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그 결과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주는 권고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자. 그의 외출은 새벽처럼 확실하다. 그분은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기입니다. 4장 1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6장 4절부터 11장 끝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언약 소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6장부터 11장까지, 여기 책의 중간 부분에 또 다른 공식적인 법원 사건이 있고, 기소가 있고, 이스라엘이 유죄이고, 그런 다음 그들에게 내려진 선고가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7절까지 사건의 시작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겠는가? 오 유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겠는가? 너희 사랑은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으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은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은 완전히 일시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나니 내 심판은 빛 같이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희생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분께 대한 신실함, 그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소송은 구체적으로 언약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여기에 분명한 진술이 있습니다: 아담처럼 그들은 언약을 어겼고, 나를 배반하고 신실치 않게 대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담처럼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고 말하는 때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동산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 해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공식적인 언약이 있었다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6~8장의 노아 시대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자들은 아담과의 관계가 공식적으로는 언약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타락이 있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학적 질문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큰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확실히 언약과 같습니다. 아담 앞에는 의무가 있으며 그는 그 의무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섭정으로서 통치하도록 허락될 것이라는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는 확실히 언약과 같은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공식적으로 언약으로 이해되니까? 나는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담이라는 단어는 아담일 수도 있고, 단순히 여기서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머지 인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면제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인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모든 인류는 노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여기서 아담이 실제로 장소에 대한 언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의 한 시기를 암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호세아서에는 이러한 유형의 암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아담이 언약을 어겼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것들에 대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나에게 불신앙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행악자들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혈액으로 추적됩니다.

강도들이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자 제사장 들은 서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세겜으로 가는 길에 살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악당을 저지른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무서운 일을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의 음행이 거기 있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열왕기하 15장 25절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을 반대하는 왕의 음모와 음모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가 왕이 브가히야를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이 배신 행위를 자행할 때 길르앗 성에서 온 50명이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특정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언약을 어겼다는 언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폭력적이고 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진행될 언약 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언약 소송에는 이스라엘이 언약에 불충실했다는 사실을 확립하는 기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그들의 남편으로 삼으셨습니다. 거기에는 간음에 대한 공식적인 고발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과의 헤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주제 중 상당수가 다시 언급되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저지른 정치적 죄에 더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력을 특징짓는 폭력이 있었고, 궁극적으로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와 숭배라는 영적인 죄인지입니다. 다른 신들, 또는 정치적 동맹을 맺고, 불의를 행하고, 왕좌에 오르는 길을 살해하는 것이 그들의 사회적 죄이든, 궁극적으로 이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호세아서의 중간 부분을 통해 전달되는 매우 침울한 메시지이며 다음 진술로 끝납니다.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을 쟁기질하고 불의를 거두셨습니다. 네가 네 길과 네 용사들의 수를 믿었으므로 네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느니라. 그러므로 네 백성 가운데서 전쟁의 소란이 일어날 것이며 네 요새가 모두 파괴될 것이다. 15절: 벤엘아 너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네게 당할 것이라

새벽에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유혈사태가 일어나겠쥬. 당신은 하나님의 길 대신에 당신의 길을 갔습니다.

당신은 군사 동맹과 정치적 힘, 군대의 규모 또는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의 소리가 이 땅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왕들을 믿었으나 너희 왕들은 살인하고 모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이 땅에 불의를 조장하였느니라.

그들은 서로를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스스로 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메시지, 이 끔찍한 기소 이후 두 번째 사이클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더 많은 판단, 슬픔, 통곡. 그러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나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이집트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졌는데 11장 8절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동정심이 내 안에서 물러가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행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진노하심으로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가 포효할 때에는 사자처럼 포효할 것이다.

그의 자녀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올 것이다. 그들이 애굽에서 새 같이, 앓수르 땅에서 비둘기 같이 떨며 올 것이라 내가 그들을 그 집으로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이제 우리는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하나님을 뵈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나 다른 책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실 것이라는 표징이 아닙니다. 호세아, 지금 사자의 포효는 경보가 되고, 혹은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메시지이며, 궁극적으로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포효하는 능력과 힘입니다.

좋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부분인 11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그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포로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지만 11장 11절에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새와 같이, 앗수르 땅에서 비둘기 같이 떨어져 오리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은 두 번째 출애굽이 될 것이며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려는 요점은 두 번째 출애굽이 첫 번째 출애굽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백성을 애굽과 앗수르와 바벨론에서부터 여러 나라에서 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아오실 것이라 주님께서 그들을 밀어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모든 기소 가운데에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왕은 끊어지고, 군사적 패배를 당하지만,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법정 소송의 목적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신다면 왜 절차에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간단히 판결을 내리세요. 그러나 이 법정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단지 감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시지만, 첫 번째 언약 소송에서처럼 이스라엘의 마음은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때립니다. 6~10장에서는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교만하고, 자신들의 죄가 너무 거만해서 그들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이 모든 일에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좋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해 어떤 종류의 복귀를 하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든 결국에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7장 14-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대 위에서 통곡합니다. 곡식과 포도주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반역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길을 고치는 대신에 그들이 하는 일은 이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하고 경쟁할 때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베고, 혈떡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피를 흘리고 혈떡이고 자해함으로써 그들은 신들이 그들에게 반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들에 대한 그들의 긴박함과 열정을 반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상 위에서 통곡하고, 곡식과 포도주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 모든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와중에 결국에는 주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5절. 내가 그들의 팔을 강하게 하여도 그들은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지만 위쪽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배와 같습니다. 그들은 보여주고 돌아오지만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이교도 의식을 더 많이 합시다. 이교도 의식을 더 많이 합시다. 좋아요? 그래서 기소가 있고, 복귀 거부와 있고, 판결이 있고, 희망의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기인 호세아서도 같은 방식으로 끝날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 소송이 있는데, 실제로 이 소송이 11장 12절에서 시작되어 책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하는 방법, 고발하는 방법, 그리고 처벌을 발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장에는 책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거대한 드라마를 해결하는 또 다른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좋아요? 언약 소송의 앞부분에서 정식 기소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나를 에워싸고 이스라엘 족속은 궤혈로 에워쌌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한 충성과 신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있지만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신 분께
신실합니다. 그래서 대조가 있습니다.

유다는 아직 에브라임만큼 죄가 없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유다가 이스라엘의
죄에 포함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죄는 아직 이스라엘의 죄만큼
심하지 아니하므로 얼마 동안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기에 공식적인 기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하루 종일
동풍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폭력을 증폭시킵니다.

그들은 앓수르와 언약을 맺고 기름을 이집트로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4-14장에 있는 다른 언약 소송과 다른 주기에서처럼 12장과
13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십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형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을 투옥하고
멀리 가두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옳은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굳게 잡고 항상 네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나 그들이 역사 전반에 걸쳐 그랬던 것처럼 회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최악된 길을 갈
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13장 5절)를 보면 광야와 가뭄의 땅에서 너희를 알았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러나 풀을 먹은 후에는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배불러서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어버렸느니라. 좋아요, 그렇다면 이 최종 언약 소송이 특별한
방식으로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한 불순종과 부적절한 반응의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집과 과일과 농사를 누리며 유익과 축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거든 삼가라. 나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기서 호세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나를 잊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표범 같이 길가에 숨어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그들 위에 엎드려 그들의 가슴을 찢으리라.

내가 사자처럼 그들을 삼키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음 같이 하리라. 이제 우리는 야생 동물이 먹이의 동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강력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몇 가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공식적인 법정 사건이나 논쟁에서 종종 질문을 하면 피고인이 주님의 주장을 반성하고 확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3장 14절에서 주님은 몇 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속량하리이까? 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오 스올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연민이 내 눈에 숨겨졌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즉시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과 마음은 구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어디에서나 인용하고 암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에 관해 말할 때 이 구절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오 무덤아, 너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는 일종의 죽음을 쓰레기처럼 말하며, 궁극적으로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에 당신은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호세아서에서 정반대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울 의 권세에서 속량하리이까? 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오 스올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에 대한 대답은 그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적인 법정 절차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유죄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13장의 마지막 진술은 사마리아가 자신의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죄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칼에 얹드러질 것이며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부서지며 임신한 여인들은 몸이 찢겨질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진술이지만 공식적인 기소에 딱 맞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전반에 걸쳐 우리가 모든 법정 사건에서 겪었던 것처럼, 마지막 희망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망의 말씀이 확장되어 14장 전체를 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14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배교함을 고치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는 내 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라.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모든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랑의 문제, 사랑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교를 치유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잡힐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4-14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단순히 선지자가 언급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일련의 뒤죽박죽된 반복 주제로 보는 대신, 실제로 이것의 머리 부분이나 꼬리 부분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당신은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은 심판이 있을 것이고, 포로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13장 14절, 사마리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한 죄를 담당하리니 그들이 칼에 얹드러질 것이요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메어 부서지며 그들의 임신한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라.

이것이 725-722년에 북쪽 왕국이 앓수르에게 멸망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구약 열왕기에는 북왕국이 멸망한 기록이 있는데, 열왕기서는 그들이 왕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역사의 외부 증거도 이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확증해 줍니다.

열왕기를 읽을 때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읽을 때 고대 근동의 비문과 기록, 그리고 성경 기록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확증하는 연대기를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앓수르 왕 사르곤 2세의 연대기에는 725년부터 722년까지 3년간 사마리아 포위 공격을 수행할 두 앓수르 왕 살만에셀 5세, 사르곤 2세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사르곤의 연대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왕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마리아의 통치자이자 이스라엘 왕은 세금을 내지 않고 사마리아가 앓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회중이 내게 주신 힘으로 사마리아와 그 언약 상대를 치고 그 병거와 포로 27,290명을 사로잡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가 우리에게 전한 심판의 경고의 정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응하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모스와 호세아의 전도를 통해 그들을 경고하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배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책의 시작 부분에 이런 충격적인 비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악해 보이는 일을 하도록 요청받은 이유입니다. 가서 문란한 여자와 결혼하세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사람들을 법정으로 불러와서 그를 정식으로 고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약이 이렇게 간절합니다. 자,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를 보면서 언약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 이 교훈을 살펴보면서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핵심 기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불충실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충실한 계약 파트너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 대해 이런 비난을 받게 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헤세드를 실천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주님은 그 땅의 주민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신실함도 없고 변함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특성이나 속성이었습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과 서로에게 신실함을 보인 것에 대한 상호적인 응답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 하리라. 나는 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제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헤세드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10장 12절, 백성을 부르시니 스스로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종교적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헤세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된 두 번째 비난은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신앙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첫 번째 명령은 그들이 헤세드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글쎄,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입니다. 십계명 중 다섯 계명은 모세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를 나타내는 일종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그들의 제사장들이 그 계명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주님께서도 그들을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 이 율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나에게 불충실하게 대했습니다.

7장 1~3절. 내가 이스라엘을 고칠 때에는 에브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행이 드러나느니라. 그들은 거짓 거래를 합니다. 도둑이 침입합니다.

도적들이 밖에서 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둘러싸고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까? 주로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사람들은 향의를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글썄요, 우리는 희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의는 어떻습니까? 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을 고발하는 또 다른 구절은 호세아 8장 12 절입니다. ,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은 고기로 제사하여 먹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리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궁궐을 건축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만 가지 율법을 써 줄지라도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의식에는 순종의 생활 방식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호세아 4장부터 14장까지의 메시지를 소개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공식적인 언약 소송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도 생각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항상 은혜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따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동반합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헤세드를 실천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다른 구체적인 기소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삶에 부어질 때마다 거기에서 순종의 생활 방식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항상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투자하실 때마다, 그 은혜가 사랑과 헌신, 신실함,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보답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이며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12장에 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강의 13, 이스라엘의 영적 불신앙, 호세아 4-14장, 1부입니다.